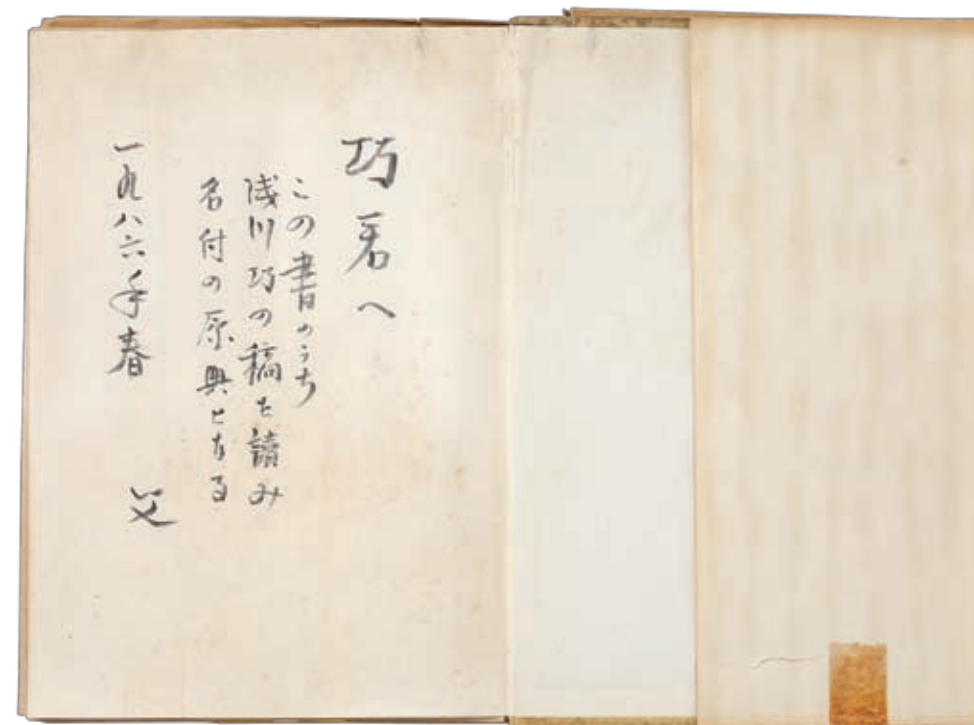




아사카와 다쿠미 저, 『조선의 소반[朝鮮の膳]』, 1929
가로 16 세로 22.5



야나기 무네토시 저, 『나의 염원[私の念願]』, 1942
가로 16 세로 22

아사카와 다쿠미

아사카와 다쿠미는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활동한 산림원(山林員)인 동시에 민예가로서 『조선의 소반』, 『조선도자명고(朝鮮陶磁名考)』 등의 저작을 남겼다. 그의 묘는 현재 망우리에 있는데, ‘한국의 산과 민예를 사랑하고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다간 일본인 여기 한국의 흙이 되다’라는 내용을 새긴 비석이 묘 옆에 서 있다. 이 비석은 한국인들이 직접 세워준 것으로, 조선을 사랑한 그의 마음을 단편적이거나 보여준다.

“조선에 관한 아사카와 다쿠미의 자세는 나에게 본보기이긴 하나,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줄 지는 긴 시간이 흐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아버지의 메모

후지모토 다쿠미의 아버지 후지모토 히토시[藤本均]는 『나의 염원』에 실린 아사카와 다쿠미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그를 존경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다쿠미[巧]라고 이름을 짓기로 결심하였고, 그 내용을 『나의 염원』 내지에 자필로 적어 놓았다.

다쿠미에게.

이 책에 실린 아사카와 다쿠미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너의 이름을 지었다.

1986년 봄, 아버지가.

아사카와 다쿠미와 아버지의 메모

조선의 산과 민예를 사랑한 일본인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 1891~1931]로,
산과 나무로부터 시작하여 소반과 백자
그리고 조선인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이어갔다.
조선에 관한 그의 사랑은 많은 일본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일본 민예의 거장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는
조선을 사랑하는
아사카와 다쿠미의 순수한 마음과 열정에 감명을 받고,
자신의 집무실 책상 위에 늘 그의 사진을 올려놓았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사카와 다쿠미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고,
자신의 아들 이름을 다쿠미[巧]라고 지은 일본인도 있었다.
그의 아들 이름은 후지모토 다쿠미[藤本巧]였다.
이제 6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후지모토 다쿠미의 일생은 아사카와 다쿠미와 유사하였다.
그 역시 조선의 민예로부터 시작하여
한국인들에게까지 자신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후지모토 다쿠미는
40여 년 동안 민예의 현장, 시골과 도시, 농촌과 항구 등을 다니며
한국인의 생활상을 카메라에 담아왔다.
그리고 말한다.
사진을 통하여 아사카와 다쿠미가 극찬한
조선의 산과 민예 그리고 사람들에 관한 한국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다고.